

CHANGSHIN UNIVERSITY
from 2013

CHANGSHIN
UNIVERSITY
www.cs.ac.kr

창신대학이 2013년 3월 1일 "4년제 창신대학교"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꿈이 큰 희망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창신대학교가 함께 합니다.

새 희망, 새 출발
4년제 창신대학교

NEW HOPE
NEW START CSU

2013학년도 신입생 모집

수시 2차 2012. 11. 12(월) ~ 11. 16(금)
정시 '나' 군 2013. 12. 22(토) ~ 12. 27(목)



재학생 홍보모델



2012 디카시(詩) - 함안

2012. 9. 22(토) ~ 23(일)

장 소 | 경남 함안 일원

주 최 |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주 관 | 디카시문화콘텐츠 연구회

후 원 | 경남 함안군, 창신대학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함안문협, 계간 <쿨투라>



창신대학교
CHANGSHIN UNIVERSITY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TEL : (055) 250-3005, 3008 FAX : (055) 250-3190 www.cs.ac.kr

함안에서 개최되는 뜻깊은 행사



하 성 식
함안군수

전국에서 오신 문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디카시 행사가 아라가야의 고도이자 700년 전 연꽃이 피는 우리 함안에서 개최되는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함안을 선택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 길 오신 것만큼 많은 의미를 찾아가시기 바라며 여러분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특히 김종희 교수님, 이상옥 회장님, 그리고 우리 군 출신인 전경린 소설가님과 함께 행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 초에 강남스타일의 다운로드가 1억 회를 넘어섰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K-팝의 열풍에다 이런 호응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저변에는 우리 예술인이 있으며 특히 문인들의 폭넓고 깊이 있는 감성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디카시도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문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함안은 일본에 고대국가를 세운 신비의 왕국 아라가야가 있었던 곳입니다. 또 700년 만에 다시 피는 고려시대 연꽃이 있으며 선조의 숨결이 살아있는 전통 낙화놀이 는 전국 유일하게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독방도 새싹이 피는 봄이면 정말 환상적이고 악양루의 석양이 강물에 길게 드리우는 시기는 7월입니다.

다음에 함안을 제대로 감상하시기 바라며 아무튼 함안은 깊은 마음속을 울리는 여운이 있는 곳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여러분의 상상력이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함안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문운이 구름처럼 피어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다시 만나는 ‘디카시詩’ 축제



김 종 희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
경희대 교수

수년 째 ‘디카시’ 행사에 초대받아 남녘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올해는 유서 깊은 아라가야의 옛 땅, 함안으로 향합니다. 함안은 한국 현대 평론문학의 거목 조연현 선생과 이름난 시인 문덕수 선생을 배출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먼 길 오가며 눈길로만 익히던 함안 들녘의 가을빛을 마음에 적셔가며 걷게 되어 참으로 행복합니다.

온 들판을 내어 이 기꺼운 축제의 자리를 마련하고 저희 문인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시는 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디카시연구회에 깊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디카시연구회는 우리 문학에 시와 영상을 결합한 새로운 장르를 개발하고 이처럼 흥왕한 발전의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근자에 우리 사회에는 유독 ‘소통’이라는 말이 화두처럼 떠돌았습니다. 나라 안 여기저기서, ‘우리’를 잃어버리고 ‘너-나’로 대립하여 목소리만 높던 일이 여럿이었습니다. 소리는 있되 감동이 없는 시대, 그리하여 예술을 통한 진정한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제 힘을 발휘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의 중요한 덕목으로 ‘카타르시스’를 말했습니다. 예술을 통해 ‘나 아닌 것들’을 이해하고, 그를 통해 다시 ‘나’를 정화시키는 일, 그것은 시대가 변하고 사람 사는 모양이 바뀌어도 언제나 한결같이 예술이 추구해온 바였습니다. 이러한 ‘교감의 시학’은, 『시경詩經』의 전반에 두드러지는 ‘비흥比興’의 시론과도 상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관계하는 모든 외물로부터 촉발되는 감흥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소통’의 문제는 곧 사람살이의 근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디지털 매체가 사람과 사람을 매개하는 오늘날, 오히려 소통부재로 인한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다시 문학이 가야할 새로운 길을 추창한 것이 ‘디카시’입니다. 디카시가 표방하는 ‘감성적 소통의 확장’은 그래서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의 디카시 축제 행사가, 함안의 문화예술을 힘 있고 아름답게 창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안의 넉넉한 들녘과 그 들녘을 휘감아 흐르는 도도한 물줄기가 디카시 예술 축제로 선연히 피어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화합과 소통의 힘이 이 지역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등불이 되리라 믿습니다.

함안지역의 아름다운 경물 디카시로 포착



이 상 옥
디카시문화콘텐츠연구회 회장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2012 디카시詩 - 함안'에 참석해주신 하성식 함안군수님, 경향각지에서 참석해주신 문인 여러분, 그리고 디카시 마니아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디카시詩운동은 2004년부터 경남 고성을 중심으로 일어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지역문화운동으로 최근 순간 포착, 순간 소통이 실시간 이루어지는 SNS의 상용화로 더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울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마사회(KRA)와 함께 하는 '농어촌희망재단'이 지역문화예술운동으로 디카시를 주목해주어서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디카시詩는 자연이나 사물(모든 피사체)에서 포착한 순간의 시적 형상(날시)을 디지털카메라(스마트폰 등의 디카)로 찍어 문자로 재현하는 멀티언어(영상+문자)예술로, 근자에 스마트폰 등에 의해 일상화된 영상 글쓰기(영상+문자)를 예술 글쓰기로 업그레이드시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고성에 이어 개최되는 '2012 디카시詩 - 함안'은 전국의 초청문인과 경남, 함안의 지역문인이 함께 함안지역의 아름다운 경물을 디카시로 포착하여 <'2012 디카시詩 - 함안' 사화집>을 묶는 것뿐만 아니라, 팝페라 가수 공연, '영상시대의 지역예술과 대중문화, 그리고 한류', '생태환경과 문학의 서정, 그리고 디카시', '지역문화예술과 기반조성의 방향성' 등의 강연과 세미나를 통해 함안지역문화예술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담론을 펼칩니다. 또한 참석자들에게는 함안군에서 '기념품'을 제공하고, 또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디카시 머그컵'을 선물로 제공합니다.

디카시와 함안이 만나 빛나는 새로운 지역문화예술 운동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2 디카시-함안' 개요

'디카시'는,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해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산을 문학적으로 재현하고, 그를 통해 지역민들과의 감성적 교감을 확장하는 문화콘텐츠이다. 지난 해 '고성'에 이어, 올해 '디카시'는 경남 함안 지역을 선정해 함안의 문화 자산과 특산품들을 시심詩心에 담고자 한다. 이는 지역민들과의 감성적 교감을 통해 함안의 문화예술 기반이 지닌 자생력을 발굴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의 지역 홍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 문화콘텐츠 개발의 한 사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함안의 특화된 상품들에 대한 감성 콘텐츠 개발은 차별화 된 마케팅 전략을 통한 경제적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본 단체는 함안 지역 문인협회의 도움을 받아 전국에서 초청된 문화예술인들과의 상호 교감을 통해, 앞으로도 함안 지역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함양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아울러 본 콘텐츠는 '한국마사회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이 주최하고, '디카시문화콘텐츠 연구회'가 주관하며, 함안군과 창신대학, 그리고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함안문협, 계간 <쿨투라> 등이 후원한다.

2. '2012 디카시-함안'의 선정 이유

함안은 풍부한 자연 환경과 특화된 지역농산물(수박, 귤), 그리고 '아라가야'의 유구한 역사적 바탕을 한데 아우르고 있는 천혜 지역이다. 여기에 최근, '에코 함안'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함안의 생태환경을 문화 산업 공간으로 꾸려가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 한 예가 '독방사계四季' 프로젝트이다. 국내에서 가장 긴 독방을 조성해 사계절의 생태변화를 문화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 함안군의 이 프로그램은 미래지향적인 생태문화콘텐츠라 할 만하다.

'아라홍련'도 함안의 대표적 콘텐츠라 할 만하다. 700년 전의 씨앗을 발아시켜 대규모 연꽃 재배지를 조성하고, 그것을 '아라홍련'이라는 브랜드로 스토리텔링 하고 있는 함안군의 문화 창조력은 다른 지역의 본보기로 충분하다.

이에 '2012 디카시'는, 그동안 함안군이 노력해 온 문화콘텐츠 개발 및 스토리텔링이 보다 다양하고 활발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국의 문화예술인들을 함안으로 초청해 그들에게 창작의 바탕으로 함안의 문화자산을 선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함안 지역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서로 교감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예술을 바탕으로 전국의 문인들이 지역민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해 갈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3. '함안'의 문화 자산

함안은 예로부터 아라가야의 숨결이 오롯이 밴 자리이다. 말산리, 도항리 등지에 산재한 고분군은 그 대표적 유적지라 할 만하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이름이 난 특화작물(수박, 포도, 귤)은 지역 경제의 큰 바탕을 이루고 있다.

몇 해 전부터는 전국에서 가장 긴 독방을 조성하고 그곳에서 생태환경 문화를 감성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독방사계四季' 프로그램을 개발해, '에코싱싱 함안'을 표방하는 미래지향적 생태 공간으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다.

매년 5월이면 봄꽃들이 수놓은 독방길 위에서 '에코싱싱 마라톤'이 펼쳐지는가 하면, 독방 아래로 이어지는 남강에선 '치녀뱃사공'의 서사가 얹힌 '나룻배 체험'도 가능하다. 또 독방 건너편의 '악양루' (법수)에서 내려다보는 남강의 저녁놀과 법수 들판의 풍경 또한 훌륭한 자연콘텐츠가 될 것이다.

남강변 절벽에 올라앉은 '와룡정'은 규모는 작지만 그것이 아우르고 있는 풍광만큼은 조선시대 그 어느 정자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 더구나, 과거에 급제한 제자가 과거에 낙방한 스승을 위해 지었다는 뒷이야기는, 사제지정이 허물어진 오늘날을 다시 한 번 반성하게 한다.

악양루, 와룡정과 더불어 함안을 대표하는 '채미정' (군북)에서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의기義氣'를 느낄 것이다. 생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어게 조려'가 세조의 왕위 찬탈에 격분하여, 벼슬을 물리고 낙향해 여생을 보낸 정자로 알려져 있는 채미정은 그 뜻과 함께 아우르고 있는 풍광 또한 빼어나다.

함안이 자랑하는 '아라홍련'은 이미 그 자체가 훌륭한 스토리텔링을 이루어내고 있다. 700년 전의 연꽃 씨앗을 발아시켜 대규모 연꽃 재배지를 조성한 함안군은, '아라홍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제1회 전국 소설 공모전을 벌였고, 모두 123편의 응모작들 가운데 우수 작품 15편을 모아 소설집 <연화 - 아라홍련 700년을 가슴에 품다>(청암, 2012)를 펴냈다. 특화된 자연환경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본보기로서 모자람이 없다.

4. '2012 디카시 함안' 세부 일정

- 모임 장소 : 함안 문화예술회관 다목적홀
- 모임 시간 : 9월 22일(토), 오후 1시

● 9월22일(토)

시 간	일 정	장 소
(오 후) 1 : 00 ~ 2 : 50	〈함안군수 환영사 및 문인대표 인사말과 내빈 소개〉 *오프닝 무대 김선희 팝페라 가수 공연 1) 초청 강연① - 전경린(소설가) : '내 고향, 함안' 2) 초청 강연② - 전찬일(영화평론가) (영상시대의 지역예술과 대중문화, 그리고 '한류')	함안 문화예술회관 다목적홀
3 : 00 ~ 4 : 00	3)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담론① - 「생태환경과 문학의 서정, 그리고 디카시」 -	함안 문화예술회관 다목적홀
4 : 20 ~ 6 : 20	4) 독방사계 : '가을' - 처녀뱃사공 이야기와 나룻배 체험 - 악양루 오르기 : '저녁놀에 물들기'	함안 법수면 악양 일대
6 : 40 ~ 8 : 00	5) 저녁 식사	장소 미정
8 : 20 ~ 9 : 00	'디카시' 자매문예지 주간 인사 - "문학청춘" 주간 김영탁, "시와 경계" 주간 김왕노, "시와 환상" 주간 박우담, "다충" 주간 변종태, "쿨투라" 대표 손정순 - 6) 지역예술인과 함께 하는 담론② - 지역문화예술과 기반조성의 방향성 -	함안 문화예술회관 다목적홀
9 : 30 ~ 10 : 00	〈숙소 배정 및 취침〉	

● 9월23일(일)

시 간	일 정	장 소
7 : 30 ~ 8 : 30	기상 및 아침 식사	장소 미정
9 : 00 ~ 9 : 30	1) 함안박물관 : '아라가야의 빛무더기'	함안박물관 (학예사)
9 : 40 ~ 10 : 20	2) 700년의 태동 : '아라홍련' 재배지	아라홍련 재배지 (문화해설사)
10 : 40 ~ 11 : 30	3) 무진정 답사	무진정 (문화해설사)
11 : 40	4) 마무리, 해산	

5. 기대효과

대개의 농촌특화사업이 생산물의 소비적 체험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번 지역문화 기반 조성 사업은 사업 대상에 대한 문화적, 산업적 체험을 통해 특정 지역을 일상적 체험으로 확장시킬 수 있고, 전국예술인들과 지역예술인,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공동의 창작과 수용의 체험을 통해 '장소'에 대한 공동 기억을 형성함으로써 지역 브랜드에 대한 공고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특히 함안군의 독방사계 생태환경과 아라가야의 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품은 지역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고장문화 브랜드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할 것이다.

6. 향후 계획

- 1) 디카시 '함안' 사화집 제작
- 2) 디카시 '함안' 테마 기념품 제작

담론

- | | |
|--|--|
| 1)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담론(1)
- 「생태환경과 문학의 서정, 그리고 디카시」 -
- 좌 장 : 김종희(문학평론가, 경희대 교수)
- 주제발표 : 홍용희(문학평론가, 경희대 교수)
- 토 론 1 : 손정순(시인, 계간 문화잡지 『쿨투라』 대표)
- 토 론 2 : 강태규(문화이론가) | 2) 지역예술인과 함께 하는 담론(2)
- 「지역문화예술과 기반조성의 방향성」 -
- 좌 장 : 고영조(시인, 경남문협 회장)
- 주제발표 : 김석준(문학평론가)
- 토 론 1 : 김혜니(문학평론가, 국제대 교수)
- 토 론 2 : 김종태(시인, 호서대 교수) |
|--|--|

참여 문인 (가나다순)

강태규(서울), 강희근(진주), 고영조(창원), 광경호(서울), 구순희(서울), 권은좌(진주), 김남호(하동), 김명희(창원), 김석준(춘천)
김 룡(김해), 김윤송(함양), 김영도(대전), 김이듬(진주), 김일태(창원), 김왕노(수원), 김영탁(서울), 김명리(일산), 김종태(천안)
김종희(서울), 김주연(속초), 김지율(진주), 김혜니(서울), 김혜연(창원), 김윤선(서울), 김연주(속초), 김영주(수원), 김하경(창원)
김영주(성남), 나석중(서울), 박노정(진주), 박서영(창원), 박우담(진주), 배한봉(창원), 변종태(제주도), 복효근(남원), 서인숙(창원)
서지월(대구), 손수남(고성), 안성덕(전주), 유승영(산청), 유홍준(진주), 윤의섭(안산), 이경숙(하동), 이달균(통영), 이병현(포천)
이성렬(수원), 이상욱(창원), 이우결(김해), 이월춘(창원), 이은호(김해), 이일림(창원), 이주연(창원), 이종천(서울), 이태관(논산)
이경숙(하동), 이이길(진주), 임성구(창원), 임동확(서울), 전찬일(서울), 정이향(고성), 정이경(창원), 정푸른(진주), 정현욱(예천)
제민숙(고성), 조문주(진주), 정희정(진주), 조은길(창원), 조향옥(진주), 차민기(창원), 천지경(진주), 채재순(속초), 천용희(창원)
최광임(대전), 최영욱(하동), 최준희(서울), 최석균(창원), 한후남(창원), 호병탁(익산), 홍용희(서울), 황시은(함안)

디카시마니아

김석선(하동), 고순덕(거제), 김명숙(거제), 김상철(김해), 김홍점(고성), 권조근(창원), 문제교(창원), 남춘화(창원), 박미아(거제)
변현상(부산), 성공숙(거제), 송미영(창원), 이한다(김해), 임체주(창원), 장성희(서울), 전점애(거제), 정수민(창원), 조영래(부산)
최진만(부산), 한수남(진주)

함안지역 문화예술인(함안문인협회)

김동규, 강재오, 강홍중, 구자순, 구자운, 권선자, 권충옥(함안예총회장), 김경련, 김상환, 김일연, 김재순
노승문, 박향순(함안문협사무국장), 송기선, 신순희, 안연희, 안춘덕, 오경자, 이강석, 이남순, 이명성
이명호, 이문자, 이병유(함안문협회장), 이상구, 이상익, 이영자, 장영수, 정미경, 정혜자, 조평래
조선욱, 조승래, 조정래, 조정모, 조평래, 주경호